

환자를 중심에 둔 '인문학적 의학'이 필요하다

의학, 인문으로 치유하다

예병일 지음

미술,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현대인이 그가 다뤘던 학문을 모두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할까? 한국이라고 가정했을 때, 입시 준비를 짧게 잡고 대학 졸업 후 바로 능력을 펼친다고 해도 한 분야만 6~7년은 필요하다. 또 그가 다뤘던 해부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몇 년간의 현장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잘하려면 못해도 60~70살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연세대 원주과대학 예병일 교수의 '의학, 인문으로 치유하다'는 다빈치의 천재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의학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사고, 즉 인문학에서 출발한 학문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근대에 들어와서 과학적 방법을

선택했을 뿐 인문학의 범주에서 의학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서양의학은 기원전 5세기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동양의학은 기원전 3세기 중국에서 자리를 잡았다.

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주로 철학의 분야에 머물면서 과학의 도구를 빌려다 쓰는 정도였다. 이후 르네상스를 거치며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집단위생이 중시됐고, 이를 일부나마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 결과 미국에서 1910년 의학개혁이 일어나 과학 중심의 의학이 자리 잡았다.

다빈치가 해부도를 그린 것도 '의학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독학으로 해부학을 공부해 해부도를 남겼을 뿐 아니라 심장박동 및 혈액 순환에 관한 생리학적 개념을 정립해 훗날 허리가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액체 왁스를 인체의 구멍에 주입해 그 부피를 측정하기도 했다. 그는 인물을 잘 그리기 위해 인체를 연구했다.

저자는 의학을 별개의 학문으로 보지 말고, 환자를 중심에 둔 인문학적 의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학은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지만 사람이란 아주 요묘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이해가 가능한 존재다.

이에 따라 의학도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몸의 이상에 대해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해야 문제가 해결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인문학적 의학이 대두하고 있고, 글로벌 시대에는 인문학적 의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의학드라마에 외과가 주로 등장하는 이유, 법의학과 법과학, 3D 프린팅 등 흥미로운 의학 분야도 설명한다.

또 책 중간 중간에 외과학의 아버지, 백신발견 이전에 인류를 위협했던 전염병들,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한 의학의 한 가지 등에 대한 설명도 들려준다.

〈한국문학사·1만45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저자는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의학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렘브란트 '윌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한국문학사 제공〉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하루 유쾌한 수다에 에피소드 담아

역사저널 그날 1·2

역사저널 그날 제작팀 엮음

2013년부터 KBS 1 TV(매주 일요일 밤 10시30분)에서 방영중인 '역사저널 그날'은 역사를 토코쇼 형식으로 풀어낸 프로그램이다. 역사가 움직인 터닝포인트의 '결정적 하루'를 주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었다.

책은 역사를 바꾼 '결정적 그날'에 포커스를 맞췄다. 1권 '태조에서 세종까지'는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어 이성계가 500년 왕조의 서막을 열던 날, 세자 양녕이 폐위되던 날, 세종이 집현전을 열던 날 등 '그날'들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말미에 실린 특별 기획 '창덕궁 가는 날'을 실었다.

2권은 '문종에서 연산군까지'다. 세자빈 권씨가 단종을 낳고 죽던 날을 시작으로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옥새를 받던날, 세조와 공신들이 피로 맹세한 날,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를 시작한 날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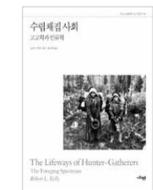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의 이모저모를 담은 '조선 왕릉의 비밀'도 흥미롭다. 〈민음사·1권 1만4800원·2권 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한시, 슬픈 감성으로 가을을 읊다=슬픈 가을의 노래 한시. 가을과 슬픔은 어떻게 만나 비추문학으로 맺어졌을까.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총서, 중국문학사를 따라 비추감성이 싹트고 발전해 사회적 감성으로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개별 작가의 다채로운 인생 역정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분위기와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체까지 파악하게 하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문서원·1만7000원〉

▲수렵채집 사회=1995년 출간된 'The Foraging Spectrum'은 다양한 수렵채집 사회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방대한 자료를 담은 대체 불가능한 수렵채집 사회 연구의 필독서다. 원서는 한국에서도 대학교 전공 심화과정의 수업이나 대학원의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어판 번역본은 참



고할 만한 연구서와 대학의 교재가 늘 부족한 한국의 인문학 고고학 독자는 물론 수렵채집 사회의 삶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균형 잡힌 시각과 지식을 줄 것이다. 〈사회평론·3만원〉

▲그리스 신화와 의학의 만남=명의 신재용의 재미있는 신화 속 건강 이야기. 아킬레우스와 만병통치약, 아폴로와 양귀비 등 그리스 신화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캐고 인간이 지향할 바를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의 본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맨얼굴을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는 삶의 지침서가 되고, 인생의 심리분석서가



되고, 건강서도 될 수 있다. 〈도서출판이유·1만8000원〉

▲괴물의 심연=자신의 두뇌 사진에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발견한 신경과학자이자 의대 교수인 제임스 팰런. 그는 곧 자신의 조상 중 살인자가 출몰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의심할 여지 없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충격을 받은 제임스 팰런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흥밋거리로만 회자되었던 사이코패스에 대해 한 차원 깊은 탐구를 진행한다. 〈더퀘스트·1만3500원〉

▲안전신화의 붕괴=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을 깨고 새로운 안전문화를 만드는 데 교훈이 될 책. 저자인 하타무라 요타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감증위원회 전 위원장은 원전사고의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한 기존의 책에 비해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밝히기 위해 발전소 운영업체, 정부, 지자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피해가 확대된 이유와 이 사고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세음·1만5000원〉

▲잡놈들 전성시대=경제학자 우석훈의 첫 번째 정치에세이. 자신이 진짜라고 우기는 '가짜'들만 살아남는 꼬질꼬질한 나라, 중요 위에 세워진 미움의 정치가 권력의 목적인 뒤끝 썩는 나라, 네 개의 감각미제 벤토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우기는 나라. 대한민국 정치1번지에서 벌어지는 '진짜 잡놈'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통해 우리가 선출한 권력의 민낯을 날아내 공개한다. 〈새로운현재·1만5000원〉

어린이 책

▲골라맨=전 세계 어린이 시리즈 가운데 '해리 포터', '구스번스'에 이어 4번째로 많이 판매된 시리즈. 어린이 게임 북의 선구자인 R. A. 몽고메리는 세계 곳곳에서 모험을 즐긴 경험을 살려 해저와 우주, 정글과 사막 등 일상과 미지의 세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소를 무대로 하는 흥미진진한 게임 북을 펴냈다. 〈고릴라박스·7500원〉



▲미국사 편지=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초강대국 미국의 역사를 한 권에 담았다. 세계사를 꿰뚫는 현

상과 사건들이 함께 들어 있는 미국의 역사를 짚어보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한 어린이 독자에게 미국의 역사를 넘어 세계를 보는 시야까지 한층 넓혀주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책과함께어린이·1만3000원〉

▲광대달문=조선 후기 실존 인물이었던 거지 출신 광대 '달문'의 초라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그려낸 작품.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천대받던 광대 달문의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이 보여 주는 배려와 상상, 더불어 사는 사

회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한다. 〈문학과지성사·9500원〉

▲꼬마 손자병법=시험, 성적, 진로, 학교 폭력, 가정불화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중국의 고전 '손자병법'에서 찾아낸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어린이 인문 교양서. 현직 초등교사가 초등학생들의 여러 고민과 스트레스에 대해 '손자병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비룡소·1만1000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